

조계사불교대학 특별강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

붓다의 리더십 핵심... 화합·자리이타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9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붓다(부처님)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붓다가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수행자들이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강조했다. 붓다를 통해 이 시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리=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인생을 바꾸는 법... 보시하라

세상에 나와 불법(佛法)을 만난 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행운은 달리 말하면 복입니다. 하지만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만난 건 큰 복이지만, 이 복이 진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진정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내일도, 모래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적선(積善)'입니다. 적선이라는 말은 착한행위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종류에 따라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는 무외시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만큼 최고의 보시는 없습니다. 인간이 대략 80년 정도 산다고 가정할 때, 23년은 수면, 7~8년은 화장실 사용, 15년은 식사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안대소하는 시간은 77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불혹(不惑)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얼굴은 자신의 생김새와 정신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머리스타일이 어떤지, 화장이 어떤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 생김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적선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인(因)을 잘 쌓으면 과(果)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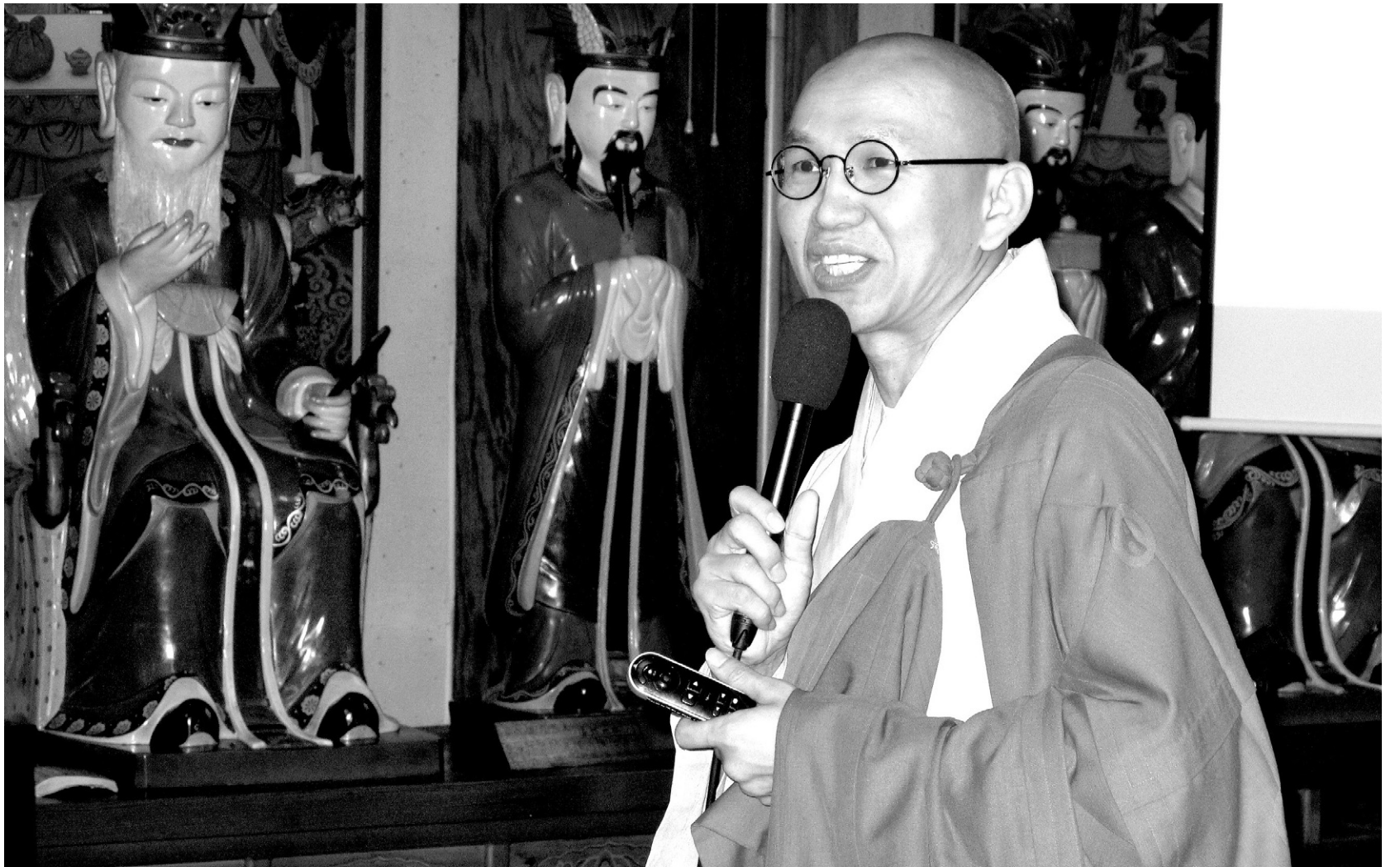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 일생이 바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조금 더 자라면 친구를 의지하고, 성인이 되면 이 성친구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의지하고, 목숨을 다할 때가 되면 종교에 의지합니다.

인간은 시기에 따라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 집니다. 세상은 변질됩니다. 진정 행복을 추구한다면 변칙 속에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불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2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불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칙이지만 불법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처님 법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익힐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직접 자신이 행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생깁니다.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만 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자들은 처음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발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알아도 부처님 생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불자들의 가장 잘못된 점은 부처님 일생을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님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도둑과 같습니다. 불자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인생의 무게중심을 갖고 나의 운명을 스스로 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운전해 나가는 것이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남전 스님은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마련한 특강에서 불자들은 불법을 통해 시대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하는 세상서 불변 원칙은 '佛法' 자신의 운명 스스로 개척해야 인생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수행 불자들 부처님 정신 항상 새겨야

스스로 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운전해 나가는 것이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불교의 리더십 통해 인생 변화시켜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리더십을 익혀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절의 스님들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듣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말이 '너나 잘해라'입니다. 지도자는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또 특징도 있어야 하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비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깨워 준 인도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신분, 나이, 성별을 불문하

고 간디를 존경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간디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 엄마는 간디에게 아들이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훈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디는 엄마에게 보름 후에 자신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또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간디는 건강을 생각해서 다른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간디에게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보름 전에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디는 '자신도 단 음식을 즐기고 말해주기 위해 보름 후에 찾아오라고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디는 평생 지도자로서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1917~1963)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황상태를 겪던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직도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기분을 바꿔 그들의 능력을 살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세계 최고의 정신적 리더

불자라면 불교를 믿기 전과 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승가공동체입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불교만큼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어나 온 집단은 없었습니다.

불교가 이토록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정신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세계 최고의 정신적 리더이십니다. 부처님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추구하셨습니다.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동반자들은 항상 하심(下心)을 해야 합니다. 하심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사부대중의 지도자로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절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를 돌려보면 고마워해야 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못 생명과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정신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자는 불교적 수행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오로지 수행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이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소가 대왕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도를 통일하고 진리로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진리를 통해 최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자들은 향기로운 세상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맑은 세상,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불법을 통해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계사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전 스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